

# 아이들이 디자인하고 만든 '기적의 놀이터' 3월 준공



'기적의 놀이터' 조감도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놀이기구 없는 놀이터, 시민들과 아이들이 직접 만든 참여형 놀이터인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에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적의 놀이터란 틀에 박힌 시설물 위주의 재미없는 놀이터를 자연 시설물을 이용하고 놀이터의 주인인 아이들의 생각을 담아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면서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재미있는 놀이터로 재창조하는 작업이다.

직접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과정과 기적의 놀이터를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렇게 모인 아이들의 생각을 설계에 반영해 지난해 10월 500여명의 시민들과 아이들이 모인 착공식 자리에서 기적의 놀이터 조감도를 공개하는 퍼포먼스도 열렸다.

이를 통해 현재 연향2지구내 호반3공원에 기적의 놀이터 1호가 조성중에 있으며 공정을 60%로 오는 3월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는 자연을 이용한 잔디미끄럼틀과 고무, 바위, 동굴 등이 있고 아이들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워 줄 20m 대형 슬라이더와 흔들다리, 모래놀이터, 펌프시설 등을 갖췄다.

순천시는 올해도 제2호 기적의 놀이터 조성을 위해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2015년 11월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정부3.0 모범자치체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1억6000만원의 특별교부세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순천시 관계자는 "기적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으로 기적의 놀이터 조성 후에는 유지관리를 지역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시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놀이터 문화개선 프로그램 및 놀이 전문가 양성, 놀이터 활성화 포럼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TF팀과 관련 부서 간 협업을 운영해 나가겠다"며 "기적의 놀이터 조성 과정 중 기적의 도서관 설립 당시의 열기를 재현하고자 시민들과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 체험해 보는 시간도 가질 계획인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전국 첫 놀이기구 없는 놀이터 순천 호반3공원에 조성 한창 잔디미끄럼틀·흔들다리 등 갖춰 공정률 60%...전국적 관심 집중

순천시는 지난해 1월 놀이터 디자인 편해문 작가를 총괄로 시민단체 대표들과 산업안전협회 등 유관기관 및 각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대상지 선정부터 프로그램 운영 등 모든 제반사항을 논의하고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주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기적의 놀이터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울산초등학생 1300여명에게 놀이터에 대한 설문 조사를 거쳐 8월에는 울산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기적의 놀이터 참여 시범 학교를 운영했다.

특히 공모를 통해 모집한 60명의 시민들과 아이들은 1박 2일간 디자인 캠프를

이동준기자 ejkim@

# "완도 여객선터미널 신축 위치 옮겨 주오"

간담회 없이 일방 추진...부지 뒤편 악취에 화재위험 노출 주차장도 협소 이용객 불편...인근 상인들 설계변경 청원서

낡고 협소한 완도항 연안 여객터미널이 신축공사를 앞두고 건물 위치 등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완도지역민의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여객터미널 인근 상가 주민과 읍·면 관계자들은 해양수산부의 전남도 등에 설계 변경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여객터미널 신축공사 설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단 한차례의 간담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치를 선정해 주차대란 등 이용객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게 완도지역민들의 주장이다.

12일 완도군 등에 따르면 총 1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빠르면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완도항 여객터미널은 기존 터미널보다 2배 이상 넓은 면적 4785㎡의 최첨단 건물로 신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완도항 여객터미널의 위치를 일부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축 예정인 여객터미널 위치를 제주도 화물선착장인 제3부두 방향으로 30~40m를 이동해야만 이용객들의 불편

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터미널 인근 상가 등 지역민들은 새 여객터미널 뒤편 부지에는 극심한 악취와 대형화재 위험에 노출된 선박, 폐유 탱크 건물, 낡은 항운노조 건물 등이 있는 데다 주차장 부지도 협소해 여객 성수기철에는 주차난은 물론 대형 인명사고의 위험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전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지로 떠오른 완도지역은 매년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인근 섬과 제주도 등을 오가기 위해 구 연안터미널을 찾는 관광객들이 차량정체 및 주차 불편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객터미널 뒤편에 있는 각종 혐오시설물을 철거하고, 터미널 위치로 옆으로 30~40m만 옮겨 신축할 경우 주차장 부지도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게 지역민들의 의견이다. 또 현 터미널 앞 광장에 있는 역사 깊은 등나무도 그대로 보존해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전남도와 해양수산부 등에 추가로 건의한 상태다.

완도교육청, 초·중학교 운동선수 14명에 방한복 전달



전남도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유권철)은 최근 동계훈련 중인 완도초등학교 육상 선수 8명과 완도중학교 역도 선수 6명에게 방한복을 전달했다.

실제 현재 설계대로 여객터미널이 신축될 경우 주차대수는 장애인차량 8대, 대형버스 8대, 일반승용차 등 총 215대에 불과하다.

완도항 여객터미널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중인 한 상인은 "지역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면 현재 수백여원을 들여 여

객터미널을 신축하면서 정작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건물을 짓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지금이라도 여객터미널 이용객이 급증하는 여름철 성수기 등을 기준으로 주차장 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설계 변경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 완도타워 누적 관람객 100만명 돌파

### 수려한 해양경관에 일출·일몰 조망 명소 인기

지역 랜드마크인 '완도타워' 누적 관람객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완도군은 12일 "지난 2008년 9월 개관한 완도타워 누적 관람객이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완도군 일출공원에 있는 완도타워는 수

려한 해양경관과 365일 일출과 일몰을 조망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완도타워는 첨탑까지 높이가 76m이며 지상 2층과 전망층으로 구성돼 있다.

1층에는 특산물 전시장과 크로마키 포토존(영상 합성사진), 휴게공간, 음식점 및

매점, 영상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

특히 영상시설에서는 완도를 상징하는 다양한 영상과 소리로 관람객들에게 완도의 숨은 매력을 소개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층에는 이미지 벤치와 포토존, 완도의 인물을 소개하는 공간 등이 배치돼 있으며, 특히 전망 데크에는 완도의 인물인 최

경주 선수와 장보고 대사를 모형으로 제작·배치해 관람객들의 기념사진 촬영 장소로 인기다. 전망층에는 다도해의 아름다운 모습을 촬영한 영상 모니터와 전망 상안경이 설치돼 있다. 또 야간에는 완도타워의 경관 조명이 켜지고, 환상적인 레이저 쇼를 연출해 야간 명소로도 인기몰이 중이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 소촌동 모아드림아파트 |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41㎡ 53㎡ 8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아파트      온세계 아파트

- KTX 5분거리
- 광주시청 10분거리
-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 무안공항 원할
- 교육환경 우수 지역  
어룡초, 중앙초, 정광중·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

가격은 500만원대

풍부한 임대수요

우수한 교육환경

선착순 동, 호수지정

문의 062-383-6400